



고 손목을 꺾어서 손끝을 大腿部에 대고 있다。頭部나 右手를 보면 恰似 仁王像 같은데 顔한 下肢나 流麗한 天衣는 菩薩像이나 天部像같이 보인다。脇侍像 옆에는 單層基壇上의 三層塔形이 一段높이 刻出되었다。基壇上面은 傾斜가 甚하고

屋身에는 各層에 隅柱形이 있고 屋蓋石 받침은 各層이 二段이다。屋身에 比하여 屋蓋石이 매우 넓다。相輪部는 露盤 覆鉢, 仰花, 寶輪, 水煙, 寶珠, 等 各部가 具存하다。六·八 cm의 간격을 둔 下邊과 基壇下邊과의 사이에는 二朶의 雲形이 있으며 相輪部 左右와 脇侍像 頭上에도 雲形이 있어 中尊쪽으로 延長되어 있다。

本誌 創刊號에 紹介된 博佛에는 塗料가 남아 있었다 하나 이 三點에서 是그런 痕跡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中 一點은 塔形 初層屋身에 表面 徑○·九 cm의 위에서 내리푼은 圓孔이 있다。

끝으로 이 三點의 年代는 各部의 手法, 特히 塔形의 彫刻과 中尊台座의 形式으로 보아 九世紀頃으로 생각된다。

中尊	全高	一八·五 cm
像	高	一〇·〇 cm
膝幅	一六·五 cm	
脇侍像	全高	一九·六 cm
像	高	一七·〇 cm
塔形	全高	一八·四 cm
基壇幅	약	八 cm

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像

黃 壽 永

九月十日 忠南 燕岐郡 全東面 多方里(사방말) 碑岩寺에서 群像四面의 三個石이 새로이 調査되었는바 그 中 二個에는 造像銘記가 있어 注目되었다。

이 遺品은 일찍부터 寺庭의 三層石塔(麗代作으로 高三 m)頂上에 놓여있던 것으로 前에 扶餘博物館 長 洪思俊氏에 의하여 着眼된 바도 있었고 昨年末에 降下되었는데 傳來에 대하여서는 文獻이나 口傳이 없다。三韓古刹이라고 일컫는 碑岩寺는 現在 法堂(極樂殿)과 寮舍各一棟만의 貧刹이나 그 周邊에는 東殿, 西殿 등으로 傳稱되는 建物址가 남아있



으며 東北方 山너머로 百濟古城이 있고 西南으로 公州와 隣接하고 멀리 東穴寺와 對하였다. 第一次調査의 參加者는 李弘植 朴魯春의 兩教授와 鄭永鎬氏, 李在玉氏와 筆者의 五人이며 十月三日의 第二次調査에는 朴日薰氏가 筆者와 同行하였다. 이 三個 石像은 九月二十日 第三九回 國寶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會에 李弘植委員과 筆者에 의하여 報告되어 國寶로서 決議되었고 十月十九日字로 指定되었다.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國寶五五二號)

矩形的 四面으로서 四圓柱로서 佛龕形을 이루었다. 上面中央에는 圓形光背內에 阿彌陀三尊과 羅漢 仁王 化佛 등을 左右相稱의 手法으로 彫刻하였으며 光背周邊과 頂上左右에는 飛天和 忍多紋이 周回하였고 下面에는 獅子蓮花紋이 彫飾되었다. 兩側面에는 上二段으로 各四軀의 樂天座像이 各種樂器를 所持하였고 그 下段에는 龍頭가 前面을 向하였으며 背面은 四段을 이루고 各段 五軀의 座佛을 蓮座上에 安置하였다. 記銘은 前面 下段에 十四行(各行四字) 楷書하였는데 『全氏:』 述況:』 二號·ホ」 同心敬造」 阿彌陀佛」 像觀音大」 世至像·」 道:』 上爲:』 願敬:』 佛像:』 此石佛像」 内外:』 十六:』 라고 一部만이 判讀되었으며 側面에 「癸酉年四月: 号: 道: 敬: 師師乃末: ... 十人知識共國王大·」 「七世父母含靈發願敬造寺知識名記」 (以上 右側인바 左側에도 在銘이나 缺字多數) 등과 背面에는 人名이 座像間地에 記刻되었는데 그中 新羅官等인 乃末 大舍가 보이며 惠明法師 惠信師等 僧俗名도 注目되었다. 石像 下面의 矩形突起로 보아 座台石은 別造되었을 것이다. 現高 四三cm、幅 二六·七cm、側幅 一七cm

(2) 己丑銘阿彌陀如來諸佛菩薩石像(國寶五五三號)

三個石中 最大の 것으로 彫像은 前面뿐이며 그 背面에는 四行의 楷書銘이 있다.

己丑年二月十五日此□七世父母大□□□阿弥陀如來諸佛菩薩像□□□光背形인 前面中央에는 阿彌陀三尊을 비롯하여 羅漢 仁王 等 立像이

蓮花座上에 있고 上面에는 化佛五軀와 그 위에 다시 七軀가 配置되어 있다. 莊嚴으로서는 下面에 欄楯과 層階가 있고 獅子 供養小像 等이 相對하고 있으며 頂上에는 樹葉間에 寶珠羅網이 垂下되었다. (1)보다 年代가 降下되는 것은 銘文뿐 아니라 樣式上에서도 推定되는 바이다. 總高 五七·五cm、下幅 三一·五cm、厚(下端) 八·五cm

(3) 彌勒菩薩半跏石像(國寶五五四號)

T字形으로서 三石中 最小 無銘이나 그 彫法 等에서 (1)과 同時造成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四面中 前面의 龕形에는 方座上에 思惟形菩薩像이 半跏座하였고 上面은 蓮葉莖形의 天蓋를 이루고 있으며 下面에는 香爐를 中心으로 座勢의 供養像이 相對하였다. 兩側面은 梯形을 이루었는데 各一軀의 菩薩立像이 兩手로서 寶珠를 받들고 前面像을 向하였고 그 下面方區에는 供養者가 跪座하였다. 後面은 緩慢한 圓隆曲面을 이루었는데 寶塔 一座를 淺刻하였다. 總高 四一cm、下幅 一五·九cm、側幅(下面) 一三cm、

以上 三石은 모두 軟質의 蠟石種類로서 赤褐色을 보이고 있다. 彫法은 精細하고 諸石像의 莊嚴手法도 華麗하나 形態와 樣式에는 아직 古調를 남기고 있다. 銘文으로 미루어 新羅統一初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바 百濟滅亡後 舊都 公州隣近에 位置하는 이 寺院에 奉安된 作品임에서 當代의 佛敎信仰과 彫像樣式의 一貌와 그 特色을 表示하는 同時에 이같은 四面碑像으로서는 初現의 遺例로서 또 韓國在銘石像의 最古遺品으로서 國內에서 收拾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智異山 泉隱寺의 金銅佛龕

鄭 永 鎬

全南 求禮邑에서 約 六m 떨어진 光義面 智異山鬱에 羅代 創建이라고